

## 토론문

2025년 여름방학 지리학사 세미나

최경현

25.08.12

### 서울 지하철 노선도의 관계성 '읽기' - 토론문

발제자가 관계적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권력관계를 드러내는지를 분석한 점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노선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 체계를 넘어, 서울이라는 중심을 구축하는 정치적 텍스트임을 밝힌 분석은 매우 탁월하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발제문을 토대로 수도권이라는 공간 구조 자체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토론문은 발제문의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노선도의 중심-주변부 위계가 단지 지도상의 정치적 표현 문제가 아니라, 제11장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된 '스케일의 위계'가 수도권 공간에 물리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스톤 등(Marston et al., 2005)은 '글로벌-로컬'의 수직적 스케일 개념이 상위 스케일에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비판하며, 편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을 제안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수도권의 공간 구조 자체가 모든 교통, 자본, 권력이 서울에 집중되고 그 주변부로 방사되는, 위계적인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하철 노선도는 이러한 위계적 현실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통해 그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진정한 대안은 노선도를 수정하는 디자인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도권 공간 자체를 '편평'하게 재구성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이어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수인분당선으로 이어진 인천-수원-성남과 같이, 하남-광주-용인 등 서울 주변에 인접해 있음에도 서로 지하철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시들을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도시 간의 이동량이 적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방사형 지하철 노선망은 스케일의 위계를 강화하고, 국토 불균형을 심화할 뿐이다. 반면, '편평한 존재론'에 입각해 국토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문이 제기한 '노선도 읽기'는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 관계의 재현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 노력에 관해 논하였다면, 본 토론문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면서, 그 기저에 있는 권력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11장의 '스케일의 위계' 개념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관계적 지리학의 관점으로 수도권을 다시 바라본다면,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에서의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 - 토론문

최명애(2018)와 박경환(2014)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인문지리학의 인간 중심적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내의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연구 지평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발제문에 공감한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와 학계의 관심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고, 서구 이론의 지역화(localization)를 과제로 제시한 부분은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12장에서 소개된 크리시카 스리니바산(Krithika Srinivasan, 2019)이 논한 윤리적 복합성을 통해 지역화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스리니바산은 인도 첸나이의 길거리 개를 분석하며, 이들이 순수한 야생동물처럼 보호받지도, 인간처럼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전이적 위치에 있는(liminal) 동물이라고 주장하며, 동물에 대한 인간 너머의 접근이 자연/사회 분리를 토대로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해 왔음에도, 이것이 윤리의 영역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발제문은 이러한 스리니바산의 주장은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 갈등을 분석하는데 좋은 토대를 제공하며, 한국 동물지리학 역시 이러한 전이적 위치와 윤리적 복합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지역화를 이루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길고양이와 '캣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다. 길고양이는 반려동물처럼 사람이 가정에서 기르는 것도, 법적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길고양이는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소음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동물'로도 취급되며,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캣맘'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이러한 전이적 위치를 가진 길고양이를 대하는 전이적 행위에 대한 불편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스리니바산의 주장을 적용하자면, 이 갈등은 단순히 동물 애호와 혐오의 대립이 아닌, '인간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이라는 이분법적 질서가 길고양이와 같은 '불순한' 존재에 의해 '더럽혀질' 때 발생하는 윤리적·공간적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길고양이와 캣맘의 사례 외에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 역시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멧돼지는 크리스 파일로(Chris Philo)가 말한 "장소에서 어긋난 문제"(Philo, 1995, p. 656, Cresswell, 2024, p. 401에서 재인용)로 볼 수 있다. 파일로는 도시가 발전하며 그곳에 있던 동물이 축출되는 과정을 분석했지만, 멧돼지 역시 한 공간에서 서식하고 있었으나, 도시가 그 공간을 차지하며 축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멧돼지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서식지를 잃고 인간의 공간을 '침범'해,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이자, 도시를 '더럽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는 위의 길고양이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이론의 지역화는 바로 이러한 길고양이와 멧돼지와 같은 '전이적 위치에 있는' 동물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이지만, 인간 너머의 지리학이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다룰 때 그 비판적인 힘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제문이 제안한 '멀티스피시즈 민족지 (multispecies ethnography)'와 같은 새로운 방법론은 이러한 '불순한' 존재와 이를 둘러싼 사회를 살펴보는 데 가장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동물지리학은 서구 이론을 성공적으로 지역화 하고, 한국만의 동물지리학, 더 나아가 자연/사회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공존의 윤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